

## 轉換期 韓國經濟의 課題

金 泰 日

〈全國經濟人聯合會 調查部〉

우리경제를 두고 轉換期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는 學者들이 많다.

정책당국의 견해 역시 그렇다.

적어도 과거와는 다른 運用방식 戰略이 필요하고 작오가 새삼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修正·補完의 정도가 아니라 좀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換骨奪胎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國家的인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가난에 찌든 삶에서 하루하루 속히 벗어나기 위해 마치 단거리 경주에 나선 육상선수마냥 죽자고 달려왔다.

그결과 모든것이 稀少하게 여겨졌던 우리경제에 적어도 中進국다운 富가 蓄積됐다.

經濟開發計劃에 着手한 以來 잘못 우리경제를 괴롭혔던 몇가지 隘路點은 解決됐다.

國際收支의 만성적인 赤字 持續적인 인플레이션, 重要部門의 낮은 生産性 所得 및 生活水準의 低下 社會制度의 後進性 등을 대부분 克服하는 構造的變化를 보이기 시작했다.

확실히 우리經濟의 體質이 最近 2~3年사이에 分明히 달라졌다.

國際收支는 赤字基調에서 黒字基調로 돌아선 糧食이 主穀의 自給이 이루어졌고 人力의 不足 現象이 部門의 이나마 深化됐으며 賃金上昇이 企業經營의 隘路要因으로 登場하기까지 됐다.

더구나 所得向上에 따른 國民의 기대내지는 需要도 構造的變化를 보여 住宅 需要가 急増하고 耐久消費財는 없어서 못 파는 현상까지 보였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상이 收拾되지 못하고 있다. 三점에서 構造變化를 否認하는 見解도 있다.

그러나 痼疾적인 몇개의 디램머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모습은 확실히 다른 處方을 요하는 狀況에 있다.

우선 國際收支上的 均衡達成이 可能해졌다는 점에 注目하게 된다.

資源波動即後엔 한때 모라토륨현상까지 憂慮할 정도에 달했으나 이제는 均衡을 달성시키는 일이 深刻한 課題는 못된다.

여전히 資本借入國이지만 經常收支의 黒字基調가 달성한적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處方이 要請된다.

그러나 단거리를 빨리뛰면 장거리도 빨리 뛸 수 있다는 思考方式에서 비롯된 高速走行이 곳곳에서 副作用을 낳게 했다.

우선 先進이라는 目標點은 아직 멀었는데 지쳐서 못뛰겠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친 마라톤선수에게 관중들은 흔히 激勵의 박수를 보내며 힘을 낼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의 많은 관중들은 激勵의 박수보다는 憐憫의 소리를 지르고 있다.

體力 조절에 실패한 선수에게 보내는 야유의 소리라고나 할까?

그런데도 코치는 엄살부리지말고 계속 질주할것을 주문하고 있다.

간판무역의 하나였던 栗山의 倒産이라든가 制世, 元企業등의 倒産을 차지하고라도 많은 企業들이 體力消耗에 의한 倒産의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대재벌의 企業들이 緊縮信號彈이 울리기 무섭게 하루살이 資金調達을 위해 求乞行脚에 나

서는가 하면 從業員 俸給마저도 어음으로 支給하고 갑자기 輸出이 안된다고 아우성을 치는것도 韓國經濟의 寓話이기에 앞서 언제 겪어도 겪어야 할 反作用이라 여겨진다.

大企業들이 이러니 中小企業들이 하루아침에 倒産해 버려 失業者들을 토해내고 있는것도 무리는 아니다.

또하나 轉換의 진통은 政策選擇의 과정에서 발견된다.

成長해왔기 때문에 成長해야 한다는 주장은 평범하면서도 說得力이 크지만 擴大에 인이 박힌 官僚들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야 직성이 풀리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30年 인플레이를 앞세우고 革齣를 자처하고 있다.

때문에 企業들은 어느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아득하다.

大企業들의 重化學進出은 그래서 当初 政府가 提示했던 先進國型 工業構造로의 부푼기대와는 달리 距離가 멀게 資金과 技術 市場確保面에서 디렘머에 빠져있다.

“시켜놓은 것이니까 돈을달라”는 要求는 呼訴라기보다 陣痛의 한 斷面이다.

그러나 진통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라도 있겠지만 勤勞者의 要求事項이 갈수록 目標을 높이고 있다든가 富의總量이 늘어나는 一방 配分의 문제를 놓고 相對的인 빈곤감이 高潮되고 있다든가 2차오일쇼크를 前後해서 우리 輸出이 마치 巨大한 벽에 부딪치듯 咄咄하게 느껴지는 일들...

× × ×

우리 모두가 轉換期經濟가 겪는 진통의 하나인 것이다.

안은 그렇다치고 밖으로 눈을 돌려보자.

于先 韓半島의 將來를 展望하는 假定 때문에 結論을 내리기 어려운 運命의 時期를 맞고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세계에서 中東과 함께 戰爭危險이 가장 높은 地域으로 꼽힐만큼 장래가 不安하고 그래서 東北亞의 火藥庫로 지칭되기도 한다.

더구나 極東의 勢力版圖에는 不確實性이 너무 많다.

우리의 安保는 北傀의 直接的인 危脅 外에도

蘇聯의 極東軍事力增強, 美, 日, 中共이 엮는 3國軸의 逆現등 不安한 變數가 疊積되어 予測不許의 狀態에 있다.

國際經濟 또한 이데오로기가 完全 脫色된 實利追求의 競爭으로 치닫고 있다.

資源問題は 枯渴의 次元이 아니라 政治·外交戰略의 次元에서 무기화의 유행속에 빠져들고 있다.

또 先後를 막론하고 保護主義에 매료되어 이제 막 中進國에 進入한 우리에게 가시돋힌 찬사를 보내고 있다.

中共의 登場으로 우리經濟는 黃砂를 뒤집어 쓸지도 모르는 不安한 立場이 되고 있다.

이같은 안락의 試鍊에서 轉換期 우리 經濟는 上昇이나 停滯나와 的인 軌跡에 處해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選擇의 必要性 때문에 우리經濟는 지금 새로운 與件에 副應할 수 있는 政策方向 및 思考의 轉換을 當面課題로 삼는다.

물론 安定과 成長을 調和시키는 方向이 理想的인 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일부에서는 安定과 成長의 同時追求는 지나친 理想主義라는 見解를 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理想主義란 바로 巨視的인 現實主義인 것이다.

때문에 經濟政策은 當面課題의 同時 對決이라는 方向에서 樹立되어야 함을 當爲로 삼는다.

이런 觀點에서 볼때 經濟政策이 止揚해야 할 基本方向은 대체로 몇가지 타이프로 規定지어 질 수 있다.

于先 計劃의 視界가 從來보다 더 包括的이어야 한다.

過去처럼 한가지 目標에 한개의 手段이 있을 뿐이라는 外聘政策에서 벗어나 폭넓게 움직이는 眼目이 切實해지고 있다.

지나치게 目標指向的인 方式, 人力과 裝備의 損失을 度外視하고 高地를 占領하겠다는 戰鬪的 思考도 止揚되어야 한다.

우리經濟는 그간 官僚들의「해바라기性思考」 때문에 많은 問題를 안게 되었다는 것은 否認할 수가 없다.

어떤 手段과 方法을 動員해서라도 數字上的 急伸張, 새로운 記錄을 내세워 자기의 功過를

認定받으려하는 態度가 모든것을 近視眼的으로 解決해온 感이 있다.

때문에 이들의 思考改善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經濟 社會構造의 高度化와 部門間的 凝集性層대로 政策間的 統合性 個別手段間的 調和 均衡이 이루어져야한다.

말하자면 問題의 解決이 또다른 問題를 낳는 現象·或은 손쉽게 採用되고있는 試行錯誤가 없어야한다는 意味다.

經濟規模가 擴大됨에따라 副作用이 副의 位置에 머무르지않고 또다른 當面課題로 登場하며 試行錯誤가 더큰 試鍊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國際收支防禦政策이 海外部門의 過剩流動性으로 나타나고 高穀價政策이 財政收支를 壓迫했는가 하면 農産物價格의 物價先導로 이어진 과정이 그 단적인 例가 된다.

셋째 經濟의 質的 高度化에 따른 效率性提高 彈力性의 問題가 된다.

經濟의 大型化과정에서 자칫 疏外되기 쉬운 質的 高度化問題 그리고 構造變化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에 좀더 彈力的으로 對處하는 일이 중요한 課題가 되고있다.

이렇듯 政策의 發想과 計劃化 過程에서 부터 混溶性 有機性을 考慮해야하고 지나친 目標指向, 一方的인 政府主導, 確認主義, 등이 再考되어야 한다.

또 構造變化에 따른 思考의 轉換이 있어야하며 經濟一辺倒가 아닌 社會開發 所得系層間的 滿足度消化, 國際化에 對備한 意識의 轉換等을 不可避한 課題로 삼아야 할것이다.

國民들도 經濟理論과 合理性이 통하고 專門 經營人이 필요로하는 企業體質로의 轉換을 要求하고 있다.

몇百萬원가지고 不過 몇년사이에 몇百億원을 벌고 몇千億원을 빌어쓸수있는 風土가 있어서는 안되고 남의돈만 가지고 값싼 勞賃으로 물건만 만들어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 정상적일수가 없다는 것이다.

장사가 잘될때는 企業의 財務構造는 改善할 생각은 않고 不動産이나 사농고 他企業을 引受

하려고 대드는 企業人에게 더이상 社會的 責任을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經濟는 분명 政府나 企業으로 하여금 확고한 決斷을 요구하고 있는 轉換點에 있다.

새로운 決斷은 奇想天外의 妙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常識과 合理性이 통하는 새로운 秩序를 바라고 있는것이다.

反面 勤勞者 역시 企業의 不實化는 곧 社會的 不實化요 失業의 增大라는 사실을 우선 認識해야 한다.

아름은 轉換期經濟의 陣痛을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면 이를 슬기롭게 最小費用으로 最大效果를 얻을수 있는 길을 모색해나가야 하는데 異論을 달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런 陣痛을 어떻게 이겨낼것인가 지금까지의 經濟運營을 正道로 轉換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까지의 타성에 몸을 내맡기는 轉換期로서의 陣痛은 陣痛으로서만 그칠 空算이크기때문이다. 成長을 推進하는데 어「모든것을 犠牲하더라도」라는 단서를 붙인다는가 「當年の 成長極大化」라는 우쭐감에 사로잡혀있던 思考를 「모든것과의 調和를 維持하면서」 또는 「長期的인 成長極大化」라는 형태로 바꿔가야 한다.

다시말해 모든 正策이 富의 확대로만 모아질게 아니라 生活向上이라는 目標에 直結시키도록 해야하며 成長은 目標를 이룩하는 여러가지 手段가운데 하나로 생각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政府가 採擇해온 政策選擇이 몽땅 나쁘다고 탓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成長이 있기까지 政府, 企業家, (勤勞者)의 功을 否認하는것은 더욱 아니다.

× × ×

지난 62年以來 政府의 開發戰略은 当初目標以上の 成果를 거두면서 아주 成功的으로 進行되어왔다.

그結果 거의 대부분의 國民들이 政府가 提示하는 5年後, 10年後의 設計에 全幅的인 合議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經濟規模가 커졌고 세계속에서의 位置도 남의 耳目을 끌만큼 擴大했다.

過去처럼 열심히 外國資本과 原資材를 끌어

들여다 이를 製品化해서 내다 파는 戰略만으로는 통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資源 하나 없는 나라가 各國으로부터 警戒의 対象으로 評價받는다는것은 致命打 일수밖에 없다.

過去 日本의 成長패턴에 비추어 보아 成長戰略이 支障을 받을정도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日本이 警戒의 対象이 되던때는 世界經濟가 來日에 대한 밝은 確信을 가졌던 60年代였다.

때문에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은 韓國經濟가 새롭고 長期的인 政策方向의 모색을 요구하는 轉換점에 처해있다고 말한다.

輸出이 1百億달러를 넘어서고 國際收支가 赤字에서 黒字基調로 接近했고 1人당 GNP가 1千2百42달러(78年)에 달하는 高成長을 記錄했지만 反面 우리가 直面케된 問題点도 山積하게 됐다.

높은 物價上昇率, 人工輸出의 不均衡 農業및 中小企業의 落後, 金融市場의 二重構造, 慾求不滿의 加重 環境問題의 發生 등을 들수가있다.

특히 每年 10~25%에 달하는 物價上昇率은 상대적으로 國民生活의 逼迫을 가져왔을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經濟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問題点을 낳는 基本要因으로 指摘되고있다.

對外与件이 不透明한 상태에서 內的인 큰 變化 그것도 逆進的인 變化의 樣相이 나타나는것은 未來에대한 確信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다행한것은 우리를 앞서간 나라들의 많은 經驗이 우리의 予測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西独이 轉換期를 어떻게 克服했으며 日本이 어떤戰略으로 變化에 對處했는지 배울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적지않은 慰安이 될수있다.

새로운 進路에 따른 政策選擇의 기준에 많은 教訓을 우리에게 줄수있다는 뜻이다.

西独과 아르헨티나가 50年代初 우리와 비슷한 轉換期를 넘겼고 日本이 60年初 이를 經驗했다.

그중 西独과 日本은 効果的인 選擇으로 先進社會에 到達했지만 아르헨티나는 物價暴騰·低成長·國際收支 惡化 라는 經濟危機에 빠져 오늘날에는 世界 最高率의 인플레이속에 허덕이고

있다.

西独과 日本은 高度의 技術과 資本蓄積, 그리고 世界市場에 進出했던 經驗을 土台로 出發했다는 点에서 우리와는 다르다 하지만 所得·國際收支·産業選擇에 있어 우리와 비슷한 轉換期를 겪었다.

于先 西独의 境遇를 보자.

50年 1人당 GNP는 4百98달러로 出發,年平均 8.6%의 成長을 보여 59년에는 1人당 GNP가 1千1百84달러로 2倍以上 늘어났다.

經常收支는 50年 1億달러의 赤字에서 59年 10億달러의 黒字로 돌아섰고 輸出은 20億달러에서 1百億달러로 急增했다.

이같은 西独의 成長을 促進시킨 要因은 物價安定에 있었다.

50年代 平均 1.9% 不過한 物價安定은 西独 經濟에 對外競爭力 強化, 自由化의 基盤造成·投資促進이란 效果를 안겨줄수 있었다.

한편 日本은 各分野에 걸친 轉換對策으로 64年 1人당 GNP 8百29달러가 71年 2千1百78달러, 77年 6千달러로 急騰했다.

輸出은 66年 98億달러에서 74年 5百55億달러, 77年 8百5億달러, 지난해엔 9百74億달러로 急伸張 成長을 뒷받침했다.

이는 國內産業의 競爭力에 對應해서 면밀한 自由化對策을 세우는데 技術開發, 資金의 效率的인 支援, 海外情報의 빠른入受 등을 통해 可能했던 것이다.

그러나 日本은 西独과는 달리 物價·住宅·金融·福祉政策등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에 시달려야만 했다.

첫째 物價對策이 公共料金 引上抑制등 個別적인 요법에 그쳐 安定基盤을 다지는데 큰 陣痛을 겪어야 했다.

둘째 莫大한 住宅投資에도 不拘하고 地價政策이 따르지못해 住宅問題 해결에 실패했다.

셋째 人爲的인 金利政策으로 私債市場의 肥大化 金融의 二重構造를 招來했다.

이밖에 大企業에 지나친 施惠 二重 課가제로 인한 만성적인 財政赤字의 問題를 떠 안게됐다.

우리가 배워야할 공통점은 安定基盤 위에서 高度成長을 持續한點 開放体制의 利點을 살려

市場機能을 擴大시켜 나갔다는 點이다.

그러나 우리經濟는 日本經濟를 모방 축소하면서 日本의 過去政策을 맹목적으로 답습한 一面이었다.

그結果는 오늘날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같이 日本이 겪었거나 겪고있는 점과 類似하게 됐다.

이는 日本이 犯한 誤謬를 피해 좀더 긴 眼目에서 政策을 選擇해야 한다는 教訓을 주고있다.

인플레이에 있어 直接統制方式을 選擇함으로써 物價安定에 苦衷을 겪었던 前例는 西獨方式이 보다 合理的이었음을 暗示해주는 셈이다.

또, 農村所得을 都市勤勞者水準에 一致시키기 위하여 日本의 高米價政策은 農村의 所得向上에는 寄与했지만 米穀剩餘·米價上昇·財政赤字라는 深刻한 문제를 낳은 結果가 됐다.

農家所得向上이 穀物生産아닌 다른 所得原泉을 통해 이뤄줘야한다는 政策 判斷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例가 되는 셈이다.

反面 資本設備에 대한 投資와 並行해서 研究開發投資를 늘려 持續成長을 支援한 점은 우리가 알고도 취하지 못한 政策의 하나라고 할수있다.

經濟規模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政策은 보다 一般化되고 長期的 이어야 效果를 거둘수 있다.

다는 점만은 西獨, 日本의 例에서 얻을수있는 教訓의 하나이다.

또 日本의 經濟發展과정을 無批判적으로 받아들이는 姿勢 또한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점을 認識, 우리實情에 맞는 選擇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점은 台灣이 日本方式을 金料玉條로 삼지 않고도 高成長을 持續해오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強調 될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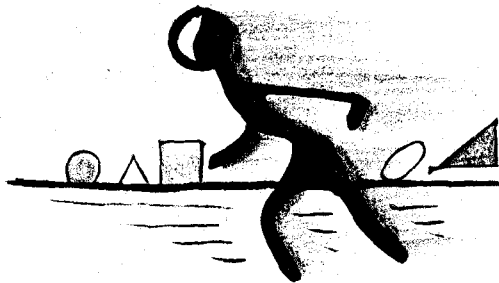
물론 台灣은 氣候條件上 食糧·住宅·燃料問題에서 苦衷이 우리보다 적다는점은 있다.

그러나 先安定 後成長 政策을 固守하면서도 輸出드라이브가 가능했다는점.

또한 우리가 알아야할 教訓임에 틀림없다.

이밖에 英國이 어느새 西獨에 뒤지고 「프랑스」에 밀리고 日本에 추격당하게한 英國病은 과연 무엇이며 이탈리아, 가 東歐를 除外한「유럽」最下位의 國家로 轉落하게된 이유, 반면 「프랑스」가 大國의 자리를 굳힐수 있었던일, 中立「스위스」가 列強의 틈바구니에서 繁榮을 구가하고 있는일들은 비단 經濟만 아니라 政治·安保에 적지않은 教訓을 주고있다.

各國이 經驗한 바를 土台로 새로운 戰略을 세워 對處하는 길이 先進產業으로 들어가는 捷徑이다.



◎ 저축할돈 없다말고

낭비없나 살펴보자